

한국소설의 엔터테인먼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타산지석 일본소설의 공력은 어디서 오는가

글 백원근 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중국 역사소설로 유명한 미야기타니 마사미츠(宮城谷昌光), 서양 역사소설가 사토 겐이치(佐藤賢一)가 일본 전국시대(1467~1573년)를 무대로 그린 소설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나오키상을 수상한 두 거장이 전공 분야 대신 일본 역사소설에 본격적으로 착목했기 때문이다. 미야기타니의 《바람은 산하에서》는 문예지 〈소설 신초〉 연재작으로 지난해 12월에 단행본 1·2권이 나온 데 이어 금년 1월과 2월에 3·4권이 속간되었고 3월 중 5권으로 마무리된다. 전국시대의 난세를 헤쳐 나가는 지방 소영주의 3대에 걸친 이야기인데, 도쿠가와 막부를 사수한 자신의 눈을 통해 새로운 시점에서 접근한 점이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전쟁의 포화가 끝없이 펼쳐지는 난세에는 수장의 판단이 가문의 존망을 결정짓는데, 오늘날의 기업 생존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이 닛케이신문(浦田憲治, 2006.12.23)의 진단이다. 유력한 장군이 아니라 무명의 지방 영주가 서바이벌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그린 점이 신선하다는 품평이다. 작가 역시 인터뷰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성에 침략해 들어오는 대군을 상대로 싸우는 미학”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한다. 《삼국지》를 비롯한 다수의 중국 역사소설을 써온 저자는 “미학이 느껴지는 사람을 그리는 것이 나의 역사소설”이라며, 이제는 일본 역사물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힌다. 땅을 새로 구입해 거대한 서고를 지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모습에서 창작의 전의가 느껴진다.

사토 겐이치의 《오나 노부나가》(女信長)는 지난해 6월 발행된 ‘전국소설’의 걸작으로 꼽힌다. 1993년 데뷔 이래 《왕비의 이혼》 등 서양 역사소설에 주력해 왔던 작가는 첫 번째 신문 연재소설의 무대를 일본 전국시대로 삼아, 전국시대 일본의 명장

인 오다 노부나가 사실은 여자였다는 기발한 설정으로 이야기를 엮어냈다. 첩포의 활용, 병농(兵農) 분리정책, 남만문화의 수용, 뛰어난 용병술을 풀어낸다. 노부나가를 여성으로 그려낸 이유에 대해 작가는 “서양에서 근대화에 가장 열심이었던 것이 여성 군주들이었으며, 근대는 남자의 시대에서 여자의 시대로 바뀌는 전환기였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노부나가의 여러 가지 여성적 특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시바 료타로로 대표되는 일본 역사소설의 전통 위에 중국과 서양 역사소설로 단련된 ‘역사의 눈’을 현대의 시점으로 재해석해 새롭게 쓴 역사소설에 독자들이 열광하고 있다.

오락소설의 장르가 소년범죄, 기업의 불상사, 의료사고 등을 주제로 삼아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복잡한 현대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배경을 자세히 알고자 하는 독자들의 실용화 지향성이 결코 가볍지 않게 인식되는 사회소설의 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닛케이신문 2006.11.25).

살인죄로 소년원에서 복역중 알게 된 14세 소년범 3인방이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내용의 《공백의 외침》은 일본사회의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된 소년범죄를 다룬다. 살인에 이르게 되는 내면의 심리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인들의 시선이 교차한다. 작가는 본래 딱딱한 사회문제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나, 가해자의 시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제의 초점이 명확해졌다고 한다. 은행원 출신이자 현역 중소기업 사외이사인 작가의 경험이 작품에 그대로 살아 있다.

한편 《하늘을 나는 타이어》는 자동차회사의 리콜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대형 트레일러가 일으킨 사고로 감춰져 있던 자동



중국 및 서양 역사소설에 천착해온 작가들이 새로운 시점으로 일본 전근대사를 묘사한 《바람은 산하에서와》(은나 노부나가).

차 메이커의 결함 은폐가 드러난다는 내용이다. ‘눈물 나게 만드는 경제소설’을 쓰고자 했다는 작가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상의 각종 사고를 통해 인간 드라마를 연출함으로써 “사회성과 오락성이 동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 미스터리 역시 활황을 보이고 있다. 대학병원 소아병동을 무대로 그려낸 《나이팅게일의 침묵》, 병과 범죄의 경계를 그린 《무통》 등이 대표적이다. 현역 의사들이 작가인 두 작품 모두 의료 현장에서의 생동감과 전문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작품들 중에는 현실의 범죄를 예견한 듯한 소설도 등장했다. 《바람의 묘비명》은 백골 사체 세 구가 발견되면서 시작되는데, 잡지 연재 도중에 실제로 가나가와현에서 다섯 구의 시체가 발견되며 화제가 되었다. 당연히 우연이지만, 젊은층에서 급증하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나 고령사회일수록 비례하는 치매 등의 현상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작품화시킨 것이어서, 완전한 우연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작년 8월 나오키상을 수상한 미우라 시온의 《마호로역 앞 다다시부름센터》 등도 사회성이 풍부한 소설로 분류된다. 이 상의 심사위원을 맡았던 이노우에 히사시는 “젊은 작가들의 소설이 대체로 자전적 성격을 띠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일상 속의 사회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분석한다. 개인의 문제가 결국 사회와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상의 문제를 작가의 시각에서 파헤치는 웹 2.0시대의 사회소설은 불투명한 사회에 감춰진 진실을 찾는 탐구력과 오락성 측면에서 계속 주목받을 전망이다.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은 복잡한 현대사회의 수수께끼를 풀기에 소설만큼 적합한 양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 육상을 시작한 소년이 400미터 릴레이 경주에 청춘을 불사르는 3년간의 궤적을 그린 《순간의 바람이 되어라》. 작가(佐藤多佳子)는 0.01초 기록을 다투는 스피드와 개인·단체경기의 모미가 있어 릴레이 경주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현장감 넘치는 묘사와 감동적 이야기 구조는 4년여에 걸쳐 공립 고등학교 육상부를 취재한 결과라고 밝히는 작가에게서 장인정신이 광채를 발한다(요미우리신문, 2006.11.22 참조).

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마라톤 초보자 대학생 10인이 일본 최고의 역전 마라톤인 하코네 대회에 도전하는 이야기이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료들이 인간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청춘소설의 모티브는 앞의 《순간의 바람이 되어라》와 맥을 같이 한다.

《Run! Run! Run!》 역시 하코네 역전 마라톤을 소재로 했는데, 팀워크를 거부하는 천재 주자의 고독과 고뇌를 부각시킨 소설이다. 최신 유전자 도핑 테스트까지 등장한다. 이외에도 마라톤 경험이 있는 여성 작가들이 ‘단순하고 아름다운’ 육상에 반해 소설로 형상화하는 레이스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류(日流)의 바람이 드센 국내 문학출판의 동향계를 보면, 도대체 일본 소설의 경쟁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묻게 된다. 위에서 소개한 몇 가지 최근 트렌드는 이에 대한 답변의 작은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소재의 다양성과 흥미로운 스토리, 작가의 생체험이나 기나긴 취재에 기반한 현장 묘사, 다양한 전문가들의 소설쓰기로 작가층이 두텁다는 단서들이 그것이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이 사실이 한국소설의 엔터테인먼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한지연**